

[보도자료]

## 2021년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 성료

3회 맞은 디자인 어워드, 국내 젊은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영감과 창의적인 디자인 교류의 장으로 도약

[서울 - 10월 12일] 주한스웨덴대사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 그리고 이케아 코리아와 함께 주최한 2021년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Korea+Sweden Young Design Award)'가 지난 8일 김다연('우주'), 서한주('꿀벌 자연호텔'), 정한얼('평야청택') 디자이너를 최종 수상자로 시상했다.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을 통해 한국과 스웨덴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젊은 디자이너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디자인 공모전으로 '혁신', '지속가능성', '더 나은 미래'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3회를 맞은 2021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for a Better Future)'을 주제로, 창의성, 심미성, 주제 연관성, 영향력을 평가기준으로 한국 및 스웨덴의 디자인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였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써 디자인이 지닌 힘을 보여준 3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향후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글로벌 차세대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다양한 워크숍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8일 시상식에는 최종 수상자를 포함, 총 17인의 입상자가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 이후에는 한국-스웨덴 디자이너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디자인 토크'가 이어졌다. '디자인 토크'에는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의 역대 수상 디자이너는 물론 국내외 신진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지속가능 디자인 사례, 철학, 작품 등을 공유하였고, 스웨덴 Ung Svensk Form 우승자 안톤 크레우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 철학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신임대사는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와 새롭고 흥미로운 디자인 컨셉을 접목시킨 것이 인상적이었다"라며 "스웨덴과 한국, 양국가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디자인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솔루션들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지속가능성은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디자인적 사고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앞으로도 한국과 스웨덴은 양국 간 디자인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역할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프레드릭 요한슨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새롭고 흥미로운 작품을 통해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참신함이 돋보였으며, 디자인을 통해 보여준 많은 분들의 열정에

감사한다"라며, "이케아 코리아는 앞으로도 디자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2021년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소개**

| 수상자 및 작품명   | 소개   |
|---|--|
| <p><b>김다연 - '우주'</b></p>         | <p>'우주'는 강아지풀을 천연재료로 우린 물로 치유 염색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섬유로 만든 모음작이다. 섬유산업의 거시적인 동물권, 인권, 환경 문제는 재료뿐만이 아닌 그 재료의 비이성적인 생산과정과 가공법이다. 식물 털은 모피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인공색소나 화학 첨가물 없이 만든 건강한 무지개색은 섬유산업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법이자 소비자들에게는 일상 속 영감이 될 것이다.</p>                             |
| <p><b>서한주 - '꿀벌 자연호텔'</b></p>  | <p>꿀벌 자연호텔은 커피 찌꺼기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간이 벌집이다. 산속 돌을 3D 스캔해 자연 벌집의 규격과 동일한 벌집과 외부로부터 벌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3D로 출력해 만들었다. 범 지구적 꿀벌의 집단 폐사는 지나친 살충제의 사용으로 인해 신경계의 혼란이 생긴 벌들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해 발생하는데, 이 간이 벌집은 꿀벌이 벌집으로 돌아가는 경로 중간에 위치해 그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 <p><b>정한얼 - '평야청택'</b></p>     | <p>평야청택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평택시 후계농업경영인 조합 플랫폼이다. 평택시의 후계 농업경영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와 연결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스토리를 조명하는 광고 캠페인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연계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한 프로젝트이다.</p>  |

[붙임 1]



<제3회 코리아+스웨덴 영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신임대사,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프레드릭 요한슨 이케아 코리아 대표 및 수상자 3인, 입상자, 심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언론문의처]

주한스웨덴대사관 류성아 통상홍보 담당관 [sung.a.ryu@gov.se](mailto:sung.a.ryu@gov.se)